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4~6/10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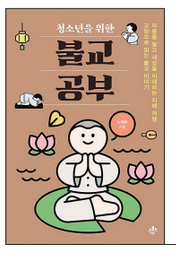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6	금강경 선물(컬러링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2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7	영원한 자유	성철	장경각
3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8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4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연금술사	9	혁명가 붓다	법륜	정토
5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불광출판사	10	원각경	김현준	효림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물흐르고 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6	중관학 특강 : 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화 :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3	어싱 :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8	8정도 수행체계(팔정도 수행체계)오리지널붓다 수행기술	붓다빠라	SATI PRESS(싸띠)
4	시드니의 도반들	기후	맑은소리맑은나라	9	중론:산스끄리뜨 게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5	위없는지혜 : 금강경반야심경해설	에드워드 콘즈	사유수	10	동화로 읽는 부처님 마음	오해균/김승연 그림	운주사

할머니가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불교 공부

노채숙 지음

지노

1만7000원

중학생 손녀 질문에 답하며 불교 안내

'종교' 개념부터 핵심 가르침까지 설명

"어른 먼저 읽고 청소년 길잡이 돼주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할머니, '불교'가 무슨 뜻이에요? 절에 가면 왜 절을 해요? 깨달음이란 뭔가요?"

중학교에 갓 입학한 다인이는 '불교'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를 맡게 되어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불교(佛敎)가 뭔지, 부처님은 왜 신이 아닌지, 다른 종교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등등 궁금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 다인이에게 할머니는 차근차근 답을 해준다.

〈청소년을 위한 불교 공부〉는 청소년들이 할머니와 다인이의 대화를 통해 불교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돕는 안내서다. 불교인문학 강사로 활동하는 저자가 교육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불교를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했다.

1부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에서는 종교란 무엇이고 불교는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다. 할머니는 "불교란 한마디로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이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반성해서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가르침"이라고 정리한다.

2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세요?'는 고타마 싯다르타의 생애를 알려주고, 3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불교는 어떻게 되었어요?'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과 불교의 전파 과정을 알려준다. 4부 '불교에서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에요?'에서는 공(空)과 업, 해탈 등의 개념을 소개한다. 특히 '공'에 대해선 "어떠한 것도 멈추어 있는 것은 없으니까 집착이나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그런데도 욕심을 계속 부리고 집착하면 괴로워진다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5부 '수행을 왜 해요?'에서는 스님은 왜 삭발을 하고 절에 모여 사는지, 절에 가면 왜 절을 하는지 등등 사찰 생활과 수행에 관한 궁금증에 답한다. 마지막 장에선 청소년을 위한 계율을 소개해 일상에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자는 "불교는 한국인의 정신 신념, 가치관,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기에 불교를 아는 것은 곧 한국의 역사를 아는 것과 같다"며 "불교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이 먼저 이 책을 읽고, 자녀와 학생들에게 바른 길잡이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숲을 걸으며 나를 만나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 곁의 그 숲

정태겸 지음

꽃길

1만8000원

월정사 전나무숲·백련사 동백나무숲 등

전국 34개 숲을 찾아 떠나는 여정

불교는 숲의 종교다. 부처님은 숲에서 태어나 숲에서 깨달음을 얻고 숲에서 법을 펼치다 열반에 들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찰은 산과 숲에 자리 잡고 있다. 조용하고 청정한 숲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을 응시하게 한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 곁의 그 숲〉은 우리나라의 '숲'을 주인공으로 삼은 책이다. 불교계 기자 출신인 저자는 "우리 곁에 이토록 훌륭한 숲이 있다는 걸 많은 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전국의 숲을 찾아 소개한다. 고성 화진포 금강소나무숲, 공주 메타세콰이아숲, 고창 삼태마을 왕버드나무숲, 제주 동백마을숲 등 34개 숲을 강원도·수도권·충청도·경상도·전라도·제주도의 6개 장에 나눠 담았다.

아무래도 평창 월정사 전나무숲, 양산 통도사 무풍한솔길, 합천 해인사 소리길, 강진 백련사 동백숲길에 먼저 눈이 간다.

월정사 전나무숲은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오대산의 대표적인 숲길이다. 하지만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저 '길'에 지나지 않을 터. 저자 역시 수없이 오간 그 숲길을 제대로 보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다. 이곳의 전나무는 약 1700그루. 평균 수령은 83년이고 가장 오래된 나무는 수령이 300년에 이른다. 울창한 숲길을 걷다 보면 아름드리나무와 고사해 바스러진 나무들이 "시방세계 모든 것이 부처"이며 "사람도 숲도 마음을 다해서 대해야 한다"는 말 없는 가르침을 준다.



통도사 무풍한송길에는 기이할 만큼 제멋대로 자라난 소나무가 가득하다. '바람이 춤을 춘다(舞風)'는 이름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절로 그려진다. 저자는 이를 보며 "절집 곁에서 셀 수 없이 오랜 시간 커온 나무는 절의 선풍(禪風)마저 따라간다"고 평했다.

강진 백련사에선 '진짜배기' 동백나무숲을 만날 수 있다. 백련사에서 인근 다산초당까지 이어지는 길목에 15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숲을 이룬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백련사 동백나무숲의 뛰어난 경치를 직접 보지 못해 한스럽다"는 글을 남겼을 정도니, 다산 정약용과 초의 선사가 교류하던 숲길을 우리도 조용히 따라 걸어볼 일이다.

숲으로 직접 떠나지 못한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숲을 가득 담은 저자의 글과 사진, 숲을 닮은 책의 만듦새만으로도 작은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

새로 나온 책

필사로 새기는 법정 스님 가르침



법정 스님의 말과 글

법정 스님 지음

샘터

2만2000원

"공존과 공생을 이루려면 이제라도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천천히 흘러야 합니다. 시를 읽듯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한 법정 스님의 법문과 글을 손으로 따라 쓰며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필사책이다. 샘터에서 펴낸 법정 스님의 글 모음집 〈스스로 행복하라〉에서 67개 문장, 말씀 모음집 〈진짜 나를 찾아라〉에서 71개 문장을 가려 뽑아 나, 관계, 자연, 삶과 죽음, 무소유, 지혜, 종교, 책, 여유의 9가지 주제로 나눠 실었다.

"원고지에 한 칸 한 칸 글을 쓰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진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천천히 따라 쓰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다.

친절한 해설로 만나는 신화 속 인물



삼국유사 기이1편

일연 스님 지음

신대현 번역·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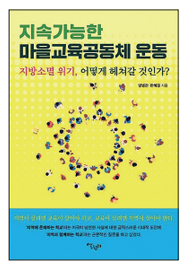
혜안

2만2000원

신대현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가 〈삼국유사〉를 번역·해설한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2024년 〈흥법탑상〉편에서 우리 불교사와 불교미술에 대해 들려준 데 이어, 〈기이1편〉에서는 고대사와 신화의 경계에서 우리의 뿌리를 이야기한다. 〈삼국유사〉 원문과 번역을 싣고,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에 비중을 둔 해설과 관련 사진을 덧붙였다.

신 교수는 "기이(紀異) 1편은 〈삼국유사〉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라며 "고대국가의 시조들과 신화적 인물들의 다채로운 이야기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데 특히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교육과 지역의 상생 관계 회복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운동

양병찬·한혜정 지음

살림터

1만8000원

"지역이 살려면 교육이 살아야 하고, 교육이 살려면 지역이 살아야 한다."

지방소멸의 시대, 급격한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과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과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저자들은 '마을교육동체'를 제안한다. 이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현상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의 토대를 점검한다. 혁신교육지구 정책과 마을교육공동체 현상의 기저를 이루는 담론은 양병찬 공주대 교수가 정리하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공동체의 연결 관계나 실천 사례 등은 한혜정 혜전대 교수가 집필했다. 풍부한 현장 사례를 통해 정책 입안과 집행, 검토 등 교육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